

201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①	2	⑤	3	③	4	②	5	①
6	⑤	7	④	8	①	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②	17	⑤	18	③	19	⑤	20	②

1. [출제의도] 음식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음식 소비가 지역 공동체 및 제3세계 생산자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로서,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 반영된 윤리적 실천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출제의도]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주장들이 경쟁적으로 논증을 펼치는 담론 과정을 통해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결과적으로 합의의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출제의도] 인권의 의미 이해하기

(가)는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보편성과 절대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나)는 권리란 법으로써만 보장되기 때문에 법에 앞서 주어지는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 인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실효적 권리를 강조한다.

4.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 이해하기

같은 톨스, 올은 소로이다. 톨스는 시민 불복종이란 공유된 정의관을 근거로 행해지는 부정직한 법에 대한 공개적인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란 사회 정의를 위해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부정직한 법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종교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종교란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은 종교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올은 종교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인간이 지닌 환상에 불과하므로, 종교를 지양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행위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6. [출제의도] 동양의 자연관 파악하기

(가)는 유학, (나)는 도가 사상이다. 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추구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으로 본다. 도가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하며,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7. [출제의도] 칼뱅과 공자의 직업윤리 파악하기

같은 칼뱅, 올은 공자이다. 칼뱅은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응답함으로써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직업 생활에서 이(利)보다 의(義)를 중시하여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칼뱅과 공자는 모두 성실한 직분 수행이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가)는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인간의 성향과 집단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정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베카리아, 벤담, 칸트의 처벌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베카리아, 올은 벤담, 병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모든 처벌을 그 자체로 악이라고 규정하며, 처벌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해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톨스와 노직의 분배적 정의 이해하기

같은 톨스, 올은 노직이다. 톨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개인들 간에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톨스와 노직은 모두 분배의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대중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 이해하기

(가)는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산업이 대중문화를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이윤만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획일화되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발전이 방해받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의 사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2.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죽음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올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플라톤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와 해방으로 보았다. 그는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으로 보았고,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날 때 순수한 인식을 통해 순수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메타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비교하기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응용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규명을 주요 탐구 과제로 보며, 도덕 명제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분석을 지향한다. 이에 비해 응용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한편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14. [출제의도] 정보 공유론 이해하기

같은 올은 모두 정보 공유론을 주장한다. 같은 정보가 자본의 지배에 놓일 때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보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올은 정보는 고정

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소유는 불합리하며, 국가 권력이나 기업 이윤에 의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5. [출제의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올은 싱어, 병은 테일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싱어는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종 차별주의를 비판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싱어와 테일러는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지위에 있어 동등하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과학 기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어 주체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과학 기술의 본질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이해하기

소천제 ㉠에 들어갈 내용은 '다문화화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문화화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다.'이다. 따라서 다문화화를 존중할수록 문화 갈등이 줄어들어 사회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반론의 근거가 된다.

18. [출제의도] 배아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배아가 수정되는 시점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를 지니므로 배아를 수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어떤 학자는 배아에 대한 존중과 이용은 병존할 수 있으며,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배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19. [출제의도] 다양한 윤리적 접근 탐구하기

같은 나딩스, 올은 밀, 병은 칸트이다. 배려 윤리를 주장한 나딩스는 도덕 판단에서 공감과 관계를 중시하였다. 공리의 원리를 강조한 밀은 도덕 판단에서 쾌락을 중시하여,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의무론을 주장한 칸트는 도덕 판단에서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을 중시했으며,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우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애를 서로의 이익에 기초한 우애, 서로의 쾌락에 기초한 우애, 덕에 있어 닮은 선한 사람들 간의 우애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 중 덕에 있어 닮은 선한 사람들 간의 우애가 완전한 우애이며 최선(最善)의 우애라고 주장하였다.